

李光洙氏와 交談錄

李 「글세요, 지금도 東亞日報社에 와서 과거의 신문장을 뒤져보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신문이나 내 쓴 글이 아니 실년 날이 거지 반 업소이다 그려. 참 今昔(금석: 지금과 옛적)의 感이 있다고 할는지 감개무량하다고 할는지요, 정으로는 東亞를 참아 못 떠나겠지만. 도리켜 생각하면 東亞는 柱礎(주초)도 잡하고, 完成하여가는 도중에 있는 公器니까, 나의 조고마한 힘이 아니라도 넉넉이하여 나갈 줄 아나 朝鮮은 아직 창업 초에 있어서 힘과 정성을 다할 곳일 것 같하여 가기로 하였습니다, 더구나 사장 方應謨(방응모)氏라거나, 편집국장 朱耀翰君(주요한군) 그밖에 여러 동지의 관계로 보아 朝鮮으로 아니갈 수 업서 그리한 것입니다.

李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러나 이러케 늘 알코 잇스니 마음뿐이지요.」

李 「그것이 내가 열한 살 되든 해 8월이지요. 한 열흘 좌우 두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急病으로 도라가셨어요, 그때 자녀라고는 나와 내 누이동생 그리고 젖먹이 어린애와- 그래서 나는 全州(전주) 李氏家門의 장손이지만 부모를 묘소에 모신 뒤 도라와서 곳 사당에 불을 노아 紅袍장(붉은색 합격증, 조선시대 문과나 무과 시험에 급제한 사람에게 발급된 붉은색 합격증서)도 文籍(문적: 일정한 목적, 내용, 체재에 맞추어 사상)도 位牌(위패)도 다 태워 버렸지요. 어린 생각에 이제는 부모도 다 도라가셨스니 고향을 떠나버리자, 자식들이 떠나가면 누가 있어서 부모 제사 드리랴, 일즉 생전에 積德(적덕: 덕을 많이 베풀어 쌓음, 또는 그런 덕행)도 못하여, 동리 사람들이 봉제사 하여 줄 이도 업스니, 에익 다 업새여 버린다고 태워 버렸지요. 그리고 또 이러한 생각도 하였어요, 이제는 科舉制度(과거제도)도 업서저서 神主를 위하여 家名도 날니지 못할 터바에 사당은 작고 두어 무얼하는가고-

그러고는 우리 조부가 小室(소실: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을 하여 가지고 사시는데 그리로 가 있셨지요, 그러나 역시 마음이 붓지 안코 압날이 각갑하여 서울 갈 생각을 품고 조부암해 가서 <58>

서울 가겠습니다.

서울 가서는 무얼하겠느냐.

요새 무슨 일이 있다하니 가서 공부도 하고 지내겠습니다.

이래서 그날 밤에 고향을 떠나 진남포를 거쳐 仁川 지나 서울로 올녀왓지요, 그때 路需(노수: 먼 길을 떠나 오가는 데 드는 비용)는 도라가신 어머니가 내가 장가들 때에 주신다고 세목 두필, 명주 세 필, 언목 한 필을 두고 간 것이 있셨는데 그것을 내어다가 팔었지요, 일흔 냥에 즉 7원을 밖었지요, 이것이 내가 밖은 부모의 유산 전부여요.

우리 집은 원래 내가 다섯 살 되기까지는 잘 사랐스나, 점점 家運이 기우러져서 그 뒤에는 훨씬 가난하게 생장하였어요, 어릴 때에 그와집에서 초가집으로, 큰집에서 오막사리로 세 번채나 이사하든 기억이 지금 남니다, 그래서 나는 7, 8세 때부터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신도 삼었지요.

李 「어린애는 죽고, 내 누이동생은 滿洲營口(만주영가)땅으로 시집가서 살지요, 몇해 전에 고향이라고 차저가니 집은 다 헐니어 형체도 업더군요, 다만 우리 遠近親戚(원근친척)되는 全州 李氏만이 만히 살고 있셨지만, 고향은 定州邑(정주읍)에서도 남방으로 약 40리 드려가는 산골에 있답니다.」

李 「장사를 하여보았지요, 그때 「히-로-」라는 卷煙草(궐련초)가 있셨습니다, 동리사람이 돈 3원을 불상하다고 주길내 그것을 미천 삼어가지고 이 「담배장사」를 하였답니다, 그것이 한 괄에 2월 40錢을 주고 사서는 등에 질며지고 도라다니며 한 통 한 통 다 팔고 나면 한 1원 이

익이 나워요. 그것도 담배를 가忿 定州邑에서 사오면 利가 薄(얇다, 적다, 야박하다)하여지니 까, 새벽 일즉이 동트기와 가치 조반을 하여먹고 미천 돈을 꾸리어 가지고는 平壤(평양)으로 나려 갑니다. 그래서 늘 평양서 한 꽉씩 사서 질며지고는 다시 定州로 가서 팔었는데, 그것을 엊더케 부즈런하게 하였든지 나중에는 돈이 수중에 모다 20여원 모여졌습니다. 그것이 뒷날, 서울 가고, 東京가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李 「그것이 열 아홉 살 때 엇지요, 그 해가 庚戌(경무)년인데 나는 東京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돌연히 조부가 병이 급하니 어서 나오라 하여서 나왔지요. 그 뒤 일개월이 다 못가서 祖父는 별세하였스니, 東京으로 더 갈수 업서서 五山學校 일을 보게 되었지요, 그때는 全身이 오직 「理想(이상)と野心に 燃える若き少年(이상과 야심에 불타는 젊은 소년)」이 되어서 교육에 全心力を 다하였습니다. 참으로 五山學校時代는 나의 일생 중 가장 로맨틱하고, 가장 「思ひ出深き(깊은 생각)」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글 배우든 이로 知名의 人士가 만히 낫셨는데 가령 醫專(의전)의 白麟濟 博士 金輿濟(백인제 선생 김여제 선생), 徐椿(서춘), 岸曙(안서) 徽文高普(휘문고보)의 金道泰君(김도태군) 等(등)이 모다 그 때의 사람들이었지요.

李 「4년 동안을.」

李 「그러타고 할 만치 이상이깁습니다.」

李 「西伯利亞로 갔지요, 나는 원래 방랑하기를 조와해요, 소년시대에 廣漠(광막: 넓고 아득함) 한 西伯利亞 별판을 도라 다니든 인상이 정말 진정으로 이를 수가 업서요, 먼-지평선에서 해가 소사 다시, 먼-지평선 속에 사라지며 白樺(백화)나무가 끊임없는 별판을 덥흔 涯しなき(애틋함) 西伯利亞를 오늘은 東으로 내일은 西으로 하고 흘너다니든 생각! 아름다운 꿈 갖지 늘 내 기억을 흔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치따」에 가서 正敎會(정교회)에서 발행하는 正敎報의 主筆(주필: 신문사, 잡지사 등의 기자 중에서 수석인 사람)로 잇스면서 몇 해를 지냈지요.」

李 「치따에 간 뒤로는 그려케 고생은 업셨습니다. 그리고 吉林省(길림성) 穀陵(목릉)에 갔을 때에 병석에 계신 李甲 氏를 맞나 몇 달을 모시고 잇셨지요.」

李 「米國가려고, 米國가서 공부하려고,」 그때 소문에 米國은 文明했고 자유의 나라로, 또 돈 업시도 공부할 수 있다기에 米國行을 열망하여, 五山學校도 나오고, 西伯利亞도 지나 도라다녔지요.」

李 「글세요, 전체가 渾然(흔연: 땀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고 고른 모양)하게 조흔 것은 어느 것일지 모르겠으나, 대체로 일부분 일부분식 조타고 생각되는 것은 잇서요, 가령 「흙」속에도 어느 일부분과 再生(재생)이나 開拓者(개척자)에도 어느 일부분이 팬찬쿠나 하고 생각되여지는 것이 잇서요.」

李 「역시 露西亞(노서아: 러시아)의 톨스토이 것이올시다, 杜翁(두옹: '톨스토이'의 음역어) 작품은 20年來 늘 읽어 옵니다, 이밖에 露西亞 作家의 것으로는 꿀-키-, 푸-시킨 것도 조와해요, 그리고 트루게넵흐의 작품도 거지 반 다 보았는데 퍽 아름다워요, 그러나 엇전지 그 사람은 有閑階級(유한계급)의 藝術(예술)이라는 늄김이 나요, 이를터이면 화려하게 장식하여 노은 서재에서 「하마끼」나 태이면서 읽을 예술인줄 알어요, 최근 것으로는 「하-듸-」도 조와요, 하-듸의 「테스」는 과연 조트군요, 日本人의 것으로는 夏目漱石(하목수석)과 國木田獨步(국목 전독보)의 작품인데 지금도 夏目 것은 그려케 再讀(재독)하고 십지 안으나 國木田獨步의 예술

만은 늘 보고 십혀요, 슬혀하는 작가 그는 빠나드, 쇼-의 것!

李「아녜요, 그것은 徐椿?君(서춘?군)이 당한 일이라나 보지요.」

李「다 업는 사실이여요, 다만 그런 사실이 있섯스면 조왓겟구나 하는 생각에서 쓴 것이지요.

獨逸潛航艇이 무슨 潛航艇임니까, 上野公園은 또 무슨 上野公園이고, 다 거짓말이여요, 呵呵.

李「그것은 자다가 공연히 金一蓮이로라 하고 자처하고 다니며 그리는 것이지요.」

李「그야 내 죄가 아니겟지요, 하하」

李「나는 일부러 동무를 사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 사관 동무도 엊더케 하면 오래 交誼(교의: 사귀어 친하여진 정)하여 나가는 법을 모릅니다, 가령 누가 當故(당고: 부모의 상사를 당함)하였다고 하여도 처저 갈 줄이나, 누가 결혼한다 할지라도 축전 칠 줄이나 그리고 누구를 방문다닐 줄도 모릅니다, 그것은 동무에 대한 내 정성도 부족한 탓이겠지만 원체 건강이 업서서, 부즈런히 차저갈 건강이 업서서요, 그리고 우리는 清濁并含式(청탁병합식: 맑음과 흐림을 아울러 포함하는 방식)의 성격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타고, 내 자신이 맑다는 뜻은 아니외다 만은,

그래서 친구를 몹시 그리워하며 심중으로는 존경하면서도 그를 표현 할 줄을 모릅니다,

李「퍽 갓갑게 밋고 지내는 벗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李「듯기는 퍽으나 조와하지만 할 줄은 몰나요, 풍금으로 讀美歌(찬미가) 정도는 간금 치지요.

李「조와는 하면서도 내 손으로 화초를 심을 줄은 몰나요, 책상에 꽃을 꽂는다든지, 화분을 마루에 놓는다든지 다 몰나요, 日本 사람 집에 가면 「床の間(とこのま: 일본식 방의 상좌에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곳)」에 청초한 분재 가튼 것을 노흔 것이 퍽으나 썰.름답게 생각되면서, 이내 내 자신은 실행하여 본 적이 업서요,

李「테니스도, 빼스뿔도 아모 것도 할 줄 몰나요, 대체로 화초를 사랑한다든지, 운동을 즐긴다든지 음악을 조와한다든지 하는 것이 모다 생활이 餘裕(여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서 할 말이지요. 우리가치 어릴 때부터 貧寒(빈한: 가난하고 쓸쓸함)과 고독으로 자라난 자에게 무슨 꽃이요, 노래요 하고 취미를 길너 가질 사이 잇섯겟습니까,

李「방랑이지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으로, 아모 근심업시 작고 작고 도라 다니는 것이 조와요. 원래 나에게는 放浪性의 피가 흘너 있는가봐요, 이번에도 滿洲로 도라다니며 왓는데, 그 인적 업는 너르나 너른 曠野(광야)로 작고 작고 도라다녔스면 얼마나 조흘는지 몰낫겟서요.」
(次號에는 政客이요 文人이신 碧初 洪命憲 氏와의 交談錄이 실니겟습니다)